물 건너간 탄소배출권거래소 '뒷북' 유치전

전남도 뒤늦게 범시도민연대회 발대식
사실상 부산으로…생색내기 행사 '빈축'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발대식이 4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권오봉 전남경제부지사와 이형석 광주경제부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등이 적극적인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사실상 무산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뒤늦게 범시도민연대회 발대식을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은 이미 관련 포럼을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남도는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정부 발표를 앞두고 생색내기식 행사를 연 것이다.

전남도는 4일 나주시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연대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 연대회는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사회·환경분야 24개 단체로 결성됐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전남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해 부산 유치 입장인 환경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주무 관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는 전남과 부산이 경쟁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무 관청이 환경부로 결정되면서 배출권 거래소 유치 경쟁에서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KRX)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KPX)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금융시스템인 만큼 부산에 있는 KRX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로서는 지식경제부가 주무 부처로 선정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정부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월 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지역현안 과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누락시켰다가 지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 KRX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소극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신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올 연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하게 될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정부 기본계획을 지켜보면서 거래소 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거래소를 금융거래소에 두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나주 유치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필요에 따라 기업이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며, 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곳이 탄소배출권거래소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발전연구원 등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따라 15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토론회

"지역내 연계조직 신설 시급"
"정부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전남대학교 이병택 대학원장은 지난 3일 "광주지역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지역과학기술 지원체제 정비와 지자체 R&D기획관리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 내 연계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이날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와 공동으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보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산업단지 내 '광산업 클러스터'는 전국지역특화산업 중 유일한 성공 사례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며 "기초과학 연구 지원부터 지식재산의 실용화, 상용화 등 일괄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과 지원제도를 선택적으로 선정, 통합 운영하는 체제와 함께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택 대학원장은 "각 개별 과학산업에 대한 사업연계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 부족하다"며 "전국이나 지역단위의 가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는 국내 유일한 광산업 집적화 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과학산업 클러스터의 실효성 있는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지역 과학산업의 자생적 발전에 필요한 과학산업 인프라가 과학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 및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과 배정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 김영선 ETRI 호남권연구센터장, 김형수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상품거래소 광주에 설립하라"

광주상의 발의 법안에 본점 광주 명시 건의

광주상공회의소가 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설립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상의가 주축이 된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추진위원회'는 4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주상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국회제출 예정인 일반상품거래법(안)에 상품거래소 본점을 광주로 명시해 줄 것과 금 거래소의 설립준비단 구성·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진위는 건의문에서 "상품거래소 광주설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유치에 줄곧 노력을 해왔으나 현 정부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금거래소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망감이 크다"며 "광주에 상품거래소를 설립해 서울의 증권거래소, 부산의 금융선물거래소와 금융 3각축을 형성하면 금융분야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상품거래소 광주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참여단체가 서로 연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홈피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광주디자인센터는 4일 기관 홈페이지(www.gdc.or.kr)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4개월 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으며 이번 품질마크 획득으로 정보 접근성 수준 향상과 만족도 제고, 정보 소외계층 해소 등 사회적 공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대세

최근 6개월 신규 분양 4636가구 중 78% 장기임대방식 공급

광주지역의 최근 아파트 분양세대 10가구 중 8가구가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역 생활정보신문 사랑방신문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광주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개 단지 총 4636세대로, 이 가운데 4개 단지 3599세대(78%)가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조사됐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지원을 받아 82.65㎡이하·5년 임대 또는 85㎡이하·10년 임대 형식의 임대조건을 거쳐 분양 전환되는 형태로, 공공임대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임대(이하 민중국) 방식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률 저하와 자금유동성 압박 등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무리한 분양판촉을 전개하기보다 수익 안정성이 담보되는 임대시장을 공략하려는 추세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분양전환 시점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 대상(무주택 임차인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어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중흥건설이 우산동 중흥S클래스 리버티(민중국) 74·84㎡ 849세대에 대해 '5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리젠시빌주택이 월남 호반베르디움(민중국) 59·78㎡ 628세대에 대해 '5년 임대' 방식으로 공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첨단2지구 부영 '사랑으로' 1754세대 분양에 나섰던 부영주택도 최근 공공임대(10년 임대)로 전환하면서 현재 408세대 청약접수가 완료된 상태다.

사랑방신문 관계자는 "분양시장 내 실구매력이 상승하지 않는데다 프리미엄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임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임대시장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2013년 상반기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현황

브랜드	공급면적	공급가액(만원)	세대수	분양시기	공급방식
중흥S클래스리버티	74·84㎡	1억3458~1억5044	849	2013. 1. 11	민간임대(5년후 분양)
효천2 중흥S클래스	84·113㎡	2억5730~3억4760	662	2013. 2. 28	일반분양
연제동 대광로제비앙	84·105㎡	2억4398~2억9698	375	2013. 3. 15	일반분양
첨단2 부영 사랑으로	60·84㎡	5448~7416	1772	2013. 4. 18	민간임대(5년후 분양)
월남지구 호반베르디움	59·78㎡	6978~8556	654	2013. 4.2 5	민간임대(5년후 분양)
효천 2지구 LH	73·80㎡	미정	324	2013. 6월말	공공임대(10년 분할)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89.51 (-0.06)	561.55 (-7.86)	2.78% (0.00)	1122.20원 (-5.80)

삼성전자 에코가전 특별전 삼성전자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7월31일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과 친환경 제품, 초절전·절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S 골드러시 에코가전 특별전'을 개최한다. 〈삼성전자 제공〉